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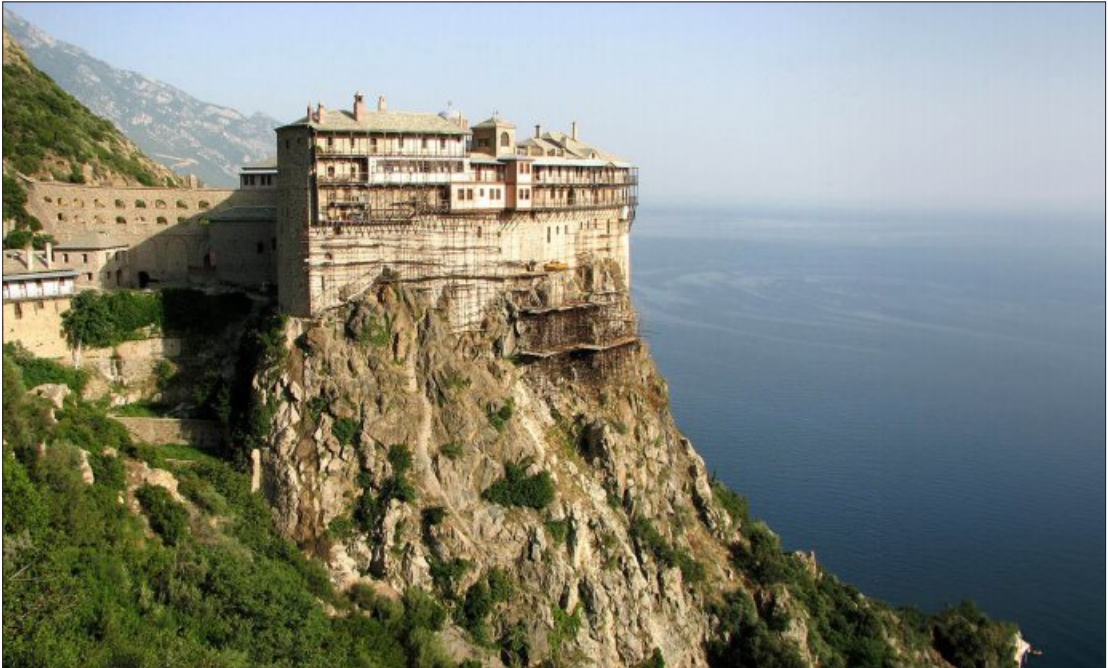


정교회주보

제2466호

2024.03.31

한국 정교회 대교구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 Tel.(02)362-6371 | Fax.(02)365-2698 | orthodoxkorea.org



<아토스 성산의 수도원 탐방 13> 해발 약 300m 화강암 바위 위에 자리 잡은 거대한 7층 건물의 시모노 페트라 수도원(사진)은 비잔틴 건축의 독특한 기념물로 성산에서 가장 인상적인 수도원이다. 건립은 13세기 중반 성 시몬 수도자가 시작하였다. 3번의 화재로 큰 피해를 보았지만 각고의 노력으로 재건되었다. 다수의 성물과 도서를 소장하고 있으며, 12개의 성당이 수도원 내외부에 있다.

사순절 제2주일

성 그레고리오스 팔라마스 대주교
성 이파티오스 주교순교자
성 이노켄티오스 대주교
(제2조 • 조과 복음 10)

성 대 바실리오스 성찬예배

- 제2조 부활 찬양송 81
- 성 그레고리오스 팔라마스 찬양송
(비교정 축일 성가집) 25
- 성당 찬양송
- 사순절 시가송 223
- 사도경 : 히브리 1,10~2,3 229
- 복음경 : 마르코 2,1~12 138
- 성모송 62

예수님은 늘 우리 곁에 계십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과 함께 있나요? 그분의 지상 생애가 펼쳐졌던 그 모든 곳에서 그분과 함께 있나요? 그 사건들을 내 영혼 안에서 다시 살아내면서 오늘날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그 순간에 그분과 함께 있습니까?

그분이 오십니다. 마지막 만찬 후 예수님은 “나는 다시 너희에게 온다.”(요한 14,18)라고 현재형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내가 다시 올 것이다.”라고 미래형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은 미래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원한 현재입니다.

“들어라. 내가 문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요한복음 3,20)라는 그분의 음성을 들읍시다. 그분은 오늘 오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 오십니다. 계속해서 영원토록 오십니다.

'예수' 중에서 [정교회출판사]

몸과 영혼에 대한 관심과 사랑 (1)

암브로시오스 조성암 한국 대주교



몇몇 사람들은 정교회가 우리의 영혼에만 관심이 있을 뿐, 몸에는 관심을 두지 않거나 혹은 몸을 과소평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인간의 몸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지, 결코 경시하거나 무시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봅시다.

1. 교회의 가르침에서

가. 우리는 구약성경의 첫 장에서 사람의 몸 창조에 대한 하느님의 특별한 관심을, 인간적 특성이 담긴 표현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모든 창조물에 대해 하느님께서 “생겨라”라고 말씀하셨고, 그에 따라 “그대로 되었”습니다. 즉, 하느님께서 말씀으로써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을 창조하실 때가 되자, 하느님께서 (마치 인간이 하듯) 흙을 가져다가 사람을 빚으시고 그 얼굴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진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드시고 코에 입김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되어 숨을 쉬었다.”(창세기 2,7) 하느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바로 이렇게 창조하셨고, 그렇게 창조하신 인체의 구조와 기능은 너무도 완벽하고 정교해서, 인체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연구를 거듭할수록 놀라기만 할 따름입니다.

나. 그리스도께서는 육화하실 때, 영혼뿐만 아니라 인간의 몸도 취하셨습니다.

인간 존재 전체가 하느님과 하나로 연합되어, 새롭게 변화하고 거룩해집니다. 알렉산드리아의 기릴로스 성인이 가르치듯, 그리스도께서 인간 존재로부터 무언가를, 즉, 인간의 몸을 취하지 않으셨다면, 인간은 구원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 그리스도께서는 지상에서 지내셨던 기간 동안 사람들의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에도 관심을 갖고 돌보셨습니다. 많은 예로, 아픈 사람을 고쳐주셨고, 눈먼 사람에게 빛을 주셨고, 배고픈 사람의 배를 채워주셨습니다.

라.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죽고 무덤에 묻히신 이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의 신조’에서 ‘죽은 이들의 부활을 믿나이다’라고 고백하듯이,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이들의 부활을 약속하셨습니다. 각 개인이 어떤 방식으로 생을 마쳤는지에 관계없이, 즉 의롭게 눈을 감았든, 회개하지 않은 죄인으로 죽었든 관계없이, 모든 이들이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다음 주보에 계속됩니다.)

'대 사순절'이라는 기회

아토스 성산의 모세 수사 / 아타나시아 봉사자 역임

부활절 전의 '대 사순절'이라고 부르는 기간은 우리 안에 특별한 느낌을 불러일으킵니다. 이 기간에 부르는 가장 아름답고 엄숙한 성가들과 여러 다양한 전례식들, 그리고 사순절 금식은 흠어져 있던 우리 자신을 다시 잘 하나로 그러모으라고 부릅니다. 진실한 회개를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내면에서 겸손한 자세로 스스로를 잘 살펴보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조로운 생활을 계속하면서 대 사순절의 이런 여러 의미있는 것들을 알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를테면 그런 사람들은 건강이나 체중감량을 위해 엄격한 식단을 기꺼이 따르지만, 교회가 가르치는 금식은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심리치료를 받으러 가거나 휴대폰을 보면서 몇 시간을 보내기는 하지만 성당에는 가지 않습니다.

현대세계의 소비적인 문화나 안락한 생활, 또는 자만심 따위로 인해 사람들은 별로 필요하지 않은 물건들에 사로잡힌 죄수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사순절은 바로 이런 판에 박힌 일상의 틀에 변화를 주어 나를 새롭게 변모시키는 기간입니다. 이를테면 이 기간에 수백 번 되풀이하는 '성 에프렘의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게으름과 쓸데없는 호기심, 권력에 대한 욕망, 헛된 말을 버리고, 대신에 정결과 겸손과 인내와 사랑을 얻으라고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러면서 이 기도는 하느님께, "내 형제자매를 판단하지 않게 해주시고 다만 내 자신의 허물만을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청하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이나 뒷담화, 판단은 그만두고 내 자신의 내면으로 눈을 돌려서 나 자신의 잘못을 바로 잡으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런 회개와 자신을 바로 아는 지식에 이르게 된다면, 그때 비로소 대 사순절은 우울하고 아무런 소득도 없는 그런 기간이 아니라 도리어 돌처럼 굳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는 기회가 될 것이고, 그로써 하느님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기르는 길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흔히 사순절에 우리는 유혹과 시련, 어려움,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주고, 삶의 균형과 어린아이 같은 심성을 얻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십자가의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십자가의 수난이 없으면 부활도 없습니다.

대 사순절은 준비를 위한 좋은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준비의 기초가 되는 것이 기도와 금식입니다. 그러나 기도와 금식은 겸손과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기도와 금식은 우리의 이기심을 누그러뜨려서 이타적인 심성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부활이라는 목표에 도달하기까지 우리에게 주어질 이 좋은 기회(대 사순절)를 잃지 않도록 합시다. 그리고 추운 겨울 뒤에 봄이 오듯, 십자가에 매달리는 처형 뒤에 부활이 따른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예배 안내

- * 화, 목 오후 5시
석후대과
- * 수요일(4/3)
미리 축성된 성찬예배
- * 금요일(4/5) 오후 6시
성모 기립 찬양 (3 스타시스)
(지역 성당 예배는 해당 성당에 문의)

- *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
미리 축성된 성찬예배
수요일 오후 5시
금요일 오전 9시



소 식

■ 사순절 예배에 참례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의미있게 보내고, 영적으로 많은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주중에 거행되는 사순절 예배에 참례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을 참고하셔서 많이 참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 성당 축일을 보내며

성모희보 축일을 맞이하여 23일(토)에 대만과, 아르토클라시아, 신앙 대화가 있었습니다. 24일(주일)에는 많은 교인들이 성찬예배에 참례하여 축일 예배를 드리고, 여성회가 준비한 식사를 나누며 친교를 가졌습니다.

■ 서울 성당 영아 세례 성사

지난 주일(24일), 성 막심 성당에서 로만 대신부의 집전으로 김 크세니아의 세례성사가 거행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 모스크바 테러 행위에 대한 세계 총대주교청 성명

지난 23일(토), 바르톨로메오스 세계 총대주교와 거룩한 공의회에서는 최근 모스크바에서 발생한 테러 행위를 강력하게 비난하고, 친애하는 러시아 국민에게 진심 어린 위로와 애도를 표했습니다.

성인의 가르침

슬픔을 담고 사는 이유

실루아노스 사부는 끊임없이 슬픔을 마음속에 담고 살았다. 그래서 그는 광야의 은수처 밖으로 나가길 원치 않았다. 피치 못해 밖에 나가야 할 경우에는 가림막으로 얼굴을 가렸다.

왜 눈을 고집스럽게 가리느냐고 질문하는 이들에게 사부가 이렇게 대답했다.

“내가 아직도 죄의 어둠 속에서 살고 있는데 어찌 빛을 볼 자격이 있겠는가?”

